

독립운동가의 후손 정순권 서강애드넷(주) 대표이사 조부 정태화공(公)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지난해 11월 20일, 서강애드넷(주) 대표이사 정순권의 조부 백암(白巖) 정태화공(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정태화공의 항일 독립운동 공적이 세기가 바뀌고 10여년이 더 지나서야 인정받은 것으로, 손자인 정순권 대표이사가 훈장을 전수했다. 정 대표는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인쇄문화발전과 인쇄문화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법률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필동에 소재한 서강애드넷(주)의 집무실에는 다양한 서적이 진열돼 있어 공부하는 사업가임을 느낄 수 있었고, 국내 유수의 여러 기관과 지자체 등 많은 기업체와 업종의 마케팅 홍보물과 기획 실적물이 20여 년의 업력을 전하고 있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백암(白巖) 정태화 선생(1871~1954)은 하동정씨 좌찬성 문절공 14대 손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 활동을 했던 蘭谷정길(鄭吉) 공의 10대 손으로 보성군 검백면 도안리에서 출생했다. 구한말 의병장으로 왜군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공적이 컸으나 지금껏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왜군의 보복으로 백암공 자신은 투옥과 망명, 잠복, 변성명 등으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가족은 폭행과 고문에 의한 학살로 풍비박산됨에 따라 공적이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손자인 정순권 서강애드넷 대표가 지극 정성의 효심으로 20여 년간 조부인 백암공의 독립활동을 조사해 공적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의 확인에 따라 지난해 11월 17일 드디어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항일운동 투신

백암공의 항일운동 투신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정의로움이 밑바탕이 됐다.

1907년 경 일본군 특수부대가 검백면 석호리 선돌(전라남도 보성군 백암면 입석동)의 '모랭이'와 '다라개미'의 험준한 산비탈에 길을 내는 일에 마을사람을 강제 동원했다. 강제 동원한 것도 불만이 가득할 상황에 왜군들은 마을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한편, 무자비한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백암공이 일본군 감독자를 찾아가 항의하고 연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격분하고 왜군감독자를 무참하게 패서 응징하니 선혈이 낭자하고 사지가 축 늘어져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백암공은 감독자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떴는데, 이 일로 인해 항일 독립운동의 여정이 시작됐다.

전라남북도 지역에 벌인 항일 의병 전투

왜군 감독자를 응징한 사건 이후부터 백암공의 가족들은 왜군의 보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의 대상이 되어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았다. 또한 이때부터 백암공은 주권이 없는 백성의 분함을 참을 수 없어 항일 독립활동을 하면서 의병을 모집하고 동지를 규합해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항일활동에 나섰다. 백암공은 자

신의 신분이 왜군 감독자의 응징으로 이미 노출됨에 따라 담산 안규홍(계홍)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인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훈련대장과 행군장을 맡으면서 신분을 위장하고 보성, 순천, 화순 등 전라남도 일대와 전북 임실 지역 일대에서 항일투쟁의 전투를 수없이 전개해 많은 전과를 올렸다.

300여 의병 모집으로 전투지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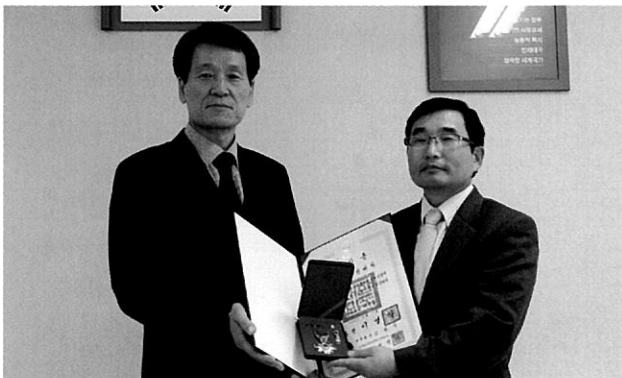
백암공은 초암산, 석호산 등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각 지방에서 수년간 항일 전투를 전개했다. 특히 백암공이 300여 의병을 모집하는 가운데, 백암공의 부친인 정환중은 남 몰래 식량과 소 등을 제공하는 등 항일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이처럼 백암공 집안의 몰심양면에 걸친 지원과 탁월한 지도에 따라 합류한 의병의 사기는 날로 올라갔으며, 전투력도 상승하고 전투지역도 확장됐다. 사기가 오르고 전투력이 상승한 의병들은 수차례의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왜군에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는 승전이 거듭됨에 따라 해당 지역 왜군들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했다.

왜군들의 보복으로 부모·처 몰살

이러한 백암공 가족들의 지속되는 의병 지원은 결국 왜군의 감시와 조사로 탄로 나기에 이르렀다. 탄로가 나자 왜군은 백암공 일가족을 의병을 지원한 역적가족으로 몰고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감나무에 결박, 고문 폭행해 백암공의 부친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내 김가곡과 모친은 고문 폭행에 의한 장독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러 집안은 풍비박산이 됐다. 집안의 어른이 모두 사망하니 아직 어린 자식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고, 이웃에 의탁하는 처지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웃의 도움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왜군이 도움을 주는 이웃마저도 끊임없이 괴롭혀 마음놓고 도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이웃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린 백암공의 어린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나 다름없는 참담한 삶을 살게 된다.

후일을 기약하는 탈옥 감행

왜군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 검거된 백암공은 광주법원에서 1909년 10월 30일 재판을 받고 폭도로 몰려 징역 7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그런데 수감 중인 백암공은 자신의 행위가 주권을 찾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왜군의 재판은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에 탈옥을 계획하게 된다. 수하 의병들의 도움을 받아 안규홍 대장과의 접선을 시도했으며, 구금중인 의병 일행들과 동반 탈옥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감옥에서 안규홍 대장과의 접선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백암공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단독 탈옥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훈장증 수여 당시 사진

변성명·위장으로 활동 파악에 한계

탈옥 이후 백암공은 항일활동을 하며 의병대를 재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왜군과 고등계형사의 추적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鄭太化, 鄭在化, 鄭在和 등으로 변성명하고 전국 팔도와 중국 만주 등을 돌며 1929년경까지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3번에 걸쳐 변성명을 하고 위장한 상태로 항일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변성명과 위장을 거듭하며 약 20여 년간 벌여온 활동을 완전히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모와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폭행고문에 학살되고, 도움을 준 일가와 이웃마저 모두가 흑행위로 사살됨에 따라 백암공 일가의 항일활동을 아는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함구한 채로 일제 치하 40여년을 보내야만 했다. 지금까지 백암공의 항일운동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고 역사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백암공의 손자인 정순권 대표는 선대의 피눈물 나는 과거사를 구전으로 듣고, 사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수많은 연고지와 관계자를 찾아 20여 년을 헤맸다. 이 가운데 천행으로 광주법원의 수형인명부 재판기록을 찾게 되고, 이를 근거로 형무소 탈옥 등의 독립활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손자의 끈질긴 노력이 조부의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을 이끌어 낸 것이다.

3대가 목숨 바친 위국충성

항일 운동의 기억이 어느 정도 잊힐 만큼 세월이 지나고 고등계 형사의 추적이 느슨해지자 백암공은 1930년 경 득량면 마천리 산간오지에 은신하게 된다. 은신 후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처로부터 60세에 아들을 낳고 62세인 1933년에는 둘째(5남)를 얻는다. 특히 5남 '수현'은 1951년 10월 16일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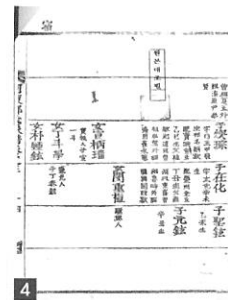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는 가슴 아픈 가족사를 이어간다.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마다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와 처, 자식까지 3대에 걸쳐 국가에 목숨을 바치는 위국충성의 가족사다. 백암공은 1954년 1월 28일 득량면 마천리에서 향년 83세로 운명했다.

끝나지 않은 독립·국가유공의 가족사

백암공의 독립운동 가족사는 정순권 대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서훈이 결정됐다. 그렇지만 백암공의 부친 정환종과 부인 김가곡에 대한 항일 독립 활동은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공적서도 제출된 상태로 보훈처의 공훈심사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또한 6.25 전쟁 중에 전사한 백암공의 5남 정수현은 국가유공자로 국립현충원에 위패봉안된 상태이며, 지금도 유해발굴이 진행 중이다.

후세에 전승 위업 현창은 우리의 몫

백암공의 독립을 위한 의병활동 행적은 충신집안에 충신한다는 옛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굳은 선비집안의 자손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나라에 바친 결의(決意)정신이 빛나는 것이다. 이는 만인에게 칭송받아 마땅하고, 훌륭한 충의정신은 후세에 길이 전승됨이 옳을 것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백암공의 공적을 현창하는 충혼비와 나라를 위한 독립정신을 고취 계몽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합당한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백암공의 공적과 의병활동 행적을 찾아 그 뜻을 기리는 것이야말로 선조의 헌신으로 평안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다.☞



1. 정환종 묘의 비석 뒤편에는 간단한 활동내역이 적혀 있다.
2. 이명 정재화로 기록된 3녀의 제적부
3. 5남 정수현 제적부 전사지 기록
4. 1905년 을사 정씨족보 정환종가 기록
5. 수형인명부 기록을 통해 항일활동을 인정받게 됐다.
6. 대한민국 건국훈장 훈장증